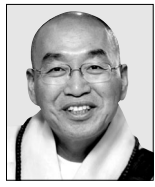


세월호 침몰 사건 SNS 애도

4월 16일 사상 최악의 해상 인재가 발생했다. 475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 179명이 최종으로 구조됐고, 18일 현재 200여 명은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빠가 구명조끼를 입혀 살린 5살 여아부터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승조원의 의무를 다한 뒤 목숨을 잃은 22살 아가씨까지.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온 국민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에 올린 스님들의 심정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박문 스님
정교회 지도법사

우리 다함께 기도합시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및 선원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함께 기도합시다. 실종자들은 무사하기를, 고인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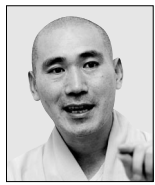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김강 스님
미행사 주지

땅끝마을 모시개떡 한말 싸들고 진도실내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모시개떡 건네받는 손길에서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250봉지의 떡이 금세 동이 났습니다. 내일을 위해 한가마를 띄우게 주문했습니다. 부도전 거북이들처럼 모두들 무사히 물오로 곁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밀려와 잠을 못 이뤘



마강 스님
동국대 정각원 교편사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꼭 막힙니다. 그들의 아픔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파하는 가족들, 고통받고 있을 실종자들, 이미 운명을 달리한 분들, 이번 사고를 애타게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단상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인재는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은 제일 먼저 도망을 친 선장으로 분노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수확여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가지 단상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교통 운전자들 책임감 갖길



박상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부장

유사 이래 배와 얽힌 사건 사고는 많았다. 그 중에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한 선장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는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해상사고는 타이타닉호 침몰사고일 것이다. 1912년 4월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호는 나흘째 되던 날 빙산에 충돌했다. 당시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타실을 지키다가 장렬히 최후를 맞았다. 그는 당황하는 선원들에게 "제군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고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스미스 선장은 영웅이 됐고, 리처필드 비콘 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석해군 선장은 탈출 당시 해적들 교란하는 등 맞섰고 결국 다리, 왼팔에 총상을 입었다. 그 역시

'영웅' 이 됐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는 유람선 콩고르디아호가 좌초됐다. 당시 선장은 프란체스코 세티노 선장인데 그는 사고 직후 구명정을 타고 육지로 도망쳐 택시를 타고 내렸다. 사고로 승객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탈리아인을 그를 'CAZZO(씩을 놔)'라 불렀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장은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승조원에게만 탈출 명령을 내린 채 제일 먼저 도망쳤다. 그리고 병원 온돌에서 돈을 말랐다. 사고처리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인 집게도 이뤄지 않아 혼신을 썼고, 오보가 난무했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은 분노했다.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는 듯 보였다. 굳이 배가 아니라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목숨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사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겁쟁이 선장이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대규모 행사 지양하고 소규모 전환 필요



김정중
동대부중 교감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수행여행을 갔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비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뜻밖의 사고 소식에 혼란과 슬픔에 빠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1차적으로 탑승부터 사고 위기사항 대처까지 불성실했던 선박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2차적으로 325명여가 대형 인원으로 수행여행을 감행한 학교 측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는 수행여행의 규모를 한 학년 전체로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로 갔을 때 일어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관리와 지도 책임을 맡은 학교에서는 소규모로 나눈 것보다는 한번에 이동하는 것이 행사 진행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수련이나 템플스테이 등 단체 행사가 많은 불교계 역시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속에 위치한 사찰 시설물들은 경사진 곳들도 많고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일이 많다 보니 안전적인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고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모두 깨지지만 나누어 담으면 깨질 확률이 줄어든다. 대형행사가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불교단체에서도 대형 행사는 지양하고 소규모로 행사를 전환해줄바란다. 이처럼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는 내실 있게 행사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社說

안전 불감증 참사, 불교도 방심말자

최악의 해상사고가 벌어졌다. 승객 47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배는 1시간여 만에 완전 침몰했고, 179명만이 구조됐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사망자 28명, 실종자는 2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에 전국은 애도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분위기다. 불교계 역시 전국 주요 종단 소속 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바라는 기도회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 산하 긴급재단구호 봉사대는 4월 17일 소속 활동가들을 진도 팽목항으로 급파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과 각종 봉축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대형 인재에 불교계는 계획했던 행사들과 축제들을 축소,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은 지역별 봉축 행사에 화려한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렸다.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다. 선장은 입사 7개월차 20대 항해사에게 배를 맡겼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나와 돈을 맡겼다. 배 안에 적재된 화물은 제대로 묶지 않아 급선회시 배가 쏠린 것도 침몰의 원인이다. 최근 불교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시설들이 청소년 수련회와 문화체험 장소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을 대상으로 4,5월 2차례 진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교육은 의미가 있다.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전을 고려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다. 사고는 방심에서 온다. 항상 경계할 일이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안내책부터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영어 안내서가 발간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무명스님과 대화〉-〈한국불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무명 스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한국불교를 쉽게 설명한 안내서로 템플스테이 현장을 비롯한 영어포교 현장 곳곳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책은 외국인 승려 무명 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과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이 공동집필했으며, 순수 영어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의 불교영어회화 책이다. 이 책은 절하는 방법, 합장의 의미 등 사찰문화는 물론 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지,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영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불자이나 각 승가대학 영어 교재, 청소년 포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발간까지 가장 힘쓴 사람은 자우 스님이다. 스님은 발품을 팔아 3천만 원이었던 제작비를 1천만 원으로 아꼈고, 공동 저자 무명 스님과 협의해 둘다 원고료를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영어 포교 원력이 한데 집대성된 불사였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찰을 방문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안내책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승의 저서를 번역해 각종 대학과 도서관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서를 제대로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바로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를 닦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우 스님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회화책 한 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부디 이 책의 발간으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안내서와 저서들이 쏟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간 강행문,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상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떡전교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